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 복지 데스크

## “가난은 구호와 원조로 해결할 수 없어”

### ‘세계 빈곤퇴치철페의 날’ 맞아 시민단체 청와대 앞 농성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노점상 강제철거 중단 등 요구

철거민과 임차상인, 장애인, 쪽방 주민들이 ‘세계 빈곤퇴치철페의 날’을 맞아 청와대 앞에 모여 “가난은 구호와 원조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와 노점상 강제철거 중단을 외쳤다.

참여연대, 흙리스행동 등 60여개 단체와 빈곤퇴치철페를 염원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1017빈곤퇴치철페의 날 조직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 20%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눈 값)은 5.30으로,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라며 “또 현재 22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육방?반지하와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발언을 열었다.

이러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산에 가로막히고 있다”며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조직위원회의 주요 요구 사항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노점상 강제철거 중단 △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 주거 안전대책 마련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농성에 들어가 앞서 청와대에 질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질의서에는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기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를 담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1017 빈곤퇴치철페의 날 기자회견에서 빈곤사회연대 등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등의 질의가 담겼다.

조직위는 “우리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여전히 누군가는 수급에

서 탈락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공약과기 발표에 불만에 떨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휠체어 탑승 모습 (왼쪽) 휠체어 승강기 (오른쪽)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오는 28일부터 시범운영

21일부터 예약·안정성 통과휠체어 확인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의 예약은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4개 노선이다.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 당 1일 평균 2~3회씩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으로 상업운영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3개월 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시속 48km)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이용자들은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28일 승차시 25일 자정까지 예매)를 하고 출발 20분 전까지 휠체어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해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된다.

## 포스코1%나눔재단, 포항·광양지역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희망날개 사업 통해 장애유형 따른 맞춤형 기구 전달 예정



(뒷줄 왼쪽부터)방미정 포스코 사회공헌그룹장, 남백원 전남도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유재웅 포스코1%나눔재단 사업선정위원, (왼쪽 하단) 최형철 선수(볼링), 신백호 선수(볼링)가 휠체어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날개’ 사업을 전개한다. 포스코는 포스코그룹과 협력사 임직원이 매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급여 1%를 자원으로 운영되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올해부터 희망날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희망날개 사업을 통해 재단은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포항, 광양지역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3년 설립 이래 미래세대,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

고 있다. 2017년부터는 지역사회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장애인 볼링 교실 운영, 선수단 연습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이번 희망날개 사업은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부 희망사업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정됐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희망날개 사업의 일환으로 16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3명에게 경기용 수동휠체어를 전달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휠체어를 전달한 선수는 장애인볼링 종목 신백호, 최형철(이하 전남) 선수와 육상 곤봉던지기 종목 최정수(경북) 선수다. 신백호 선수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

을 획득한 바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이날 휠체어 전달을 포함해, 탁구선수를 꿈꾸는 고등학생에게 휠체어를, 어린 두 자녀와 첫 외출을 꿈꾸는 어머니에게 의족을, 후천성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자립센터 감사에게는 시각장애인용 노트북을 지원하는 등 연내 총 30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신백호 선수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낮은 편이지만 포스코그룹 2만명의 후원자가 마음을 모아 후원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큰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포스코는 희망날개 사업을 장애인 거주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까지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경영이념인 ‘기업시민’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뉴스1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